

# '세계화 파이 고루 나눌때 만인이 부유'

## 실업 · 빈부차 등 세계화 '오해' 교정



글\_ 전현중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WTO체제가 출범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무대에는 정글의 무한경쟁법칙이 펼쳐지고 있다. 선진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며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게 되었지만 후진국은 빈곤, 식량부족, 환경오염, 질병, 교육기회 불평등 등으로 그들은 더욱 깊어져 보인다. 개인이나 기업 간에도 강자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약자는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자와 빈자의 사이에는 언제나 중산층이 있어서 역사의 행로를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어 왔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지금까지의 균형이 깨어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충격 중의 하나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세계화의 물줄기를 돌려 경쟁보다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농민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관심을 돌려야 하는가?

세계화의 역사는 16세기 유럽에서 중상주의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절대왕정은 정권을 유지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상인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였다. 절대군주와 상인은 자연스럽게 동업자가 되어 식민지개척의 경쟁에 열을 올렸다. 국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국부를 극대화하는데 앞장섰다. 강대국들은 무역과 상품판매를 위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식민지 수탈정책을 시행하였다. 마침내 중상주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낳게 되었고,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세계화 갈등은 서막을 열게 되었다. 중상주의가 나타난 이래

세계경제는 자유무역기조와 보호무역기조를 되풀이 해왔는데,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 때마다 세계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도 배경에는 수출은 많이 하면서도 국내시장은 지키려는 강대국 간의 보호주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호무역이 강화될 때마다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주요국들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위해 GATT, IMF, IBRD, WTO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국제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의 국제경제학 교과서에는 국민자노동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후진국의 노동자들이 선진국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무역은 후진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후진국의 후생을 감소시키는가? 유명한류브랜드인 The GAP 사장의 연봉은 200만 달러이지만, 의류를 만드는 중남미의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시간당 0.56달러에 불과하다. The GAP는 사장에게 엄청난 연봉을 지불하기 위해 중미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저임금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데 있지 않다. 질문의 핵심은 불공평해 보이는 무역을 거부했을 때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고 무역을 했을 때 후생수준이 줄어드는가 하는데 있다. The GAP의 임원과 의류를 만드는 중미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보면서 사람들은 중미의 빈곤과 착취에 분노할 수 있다. 중미 노동자들이 The GAP와의 무역을 거부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이 더욱 낮아질 수 있으며, 훨씬 더 깊은 빈곤의 나라로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57.5달러라고

한다. 30달러는 정부에 납부하고 여러 가지 경비를 제하고 나면 근로자에게는 10달러가 돌아간다고 한다. 개성공단 안에 입주해있는 한국기업들은 북한근로자를 착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축적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의 남한기업에서 일하면서 전보다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졌다면, 썩 임금을 기회로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는 지역단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을 예로 들면 일자리는 매년 3~4만 개가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역의 주력산업이던 신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다.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경남 등 인근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자리 감소의 속도를 더하였다. 그렇다면 부산지역 기업의 해외진출이 지역의 일자리를 줄이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역기업의 해외진출로 일부 인력은 기업을 따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며, 다른 일부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를 찾아 떠났을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세계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의 전통산업이 후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도 전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세계화의 격랑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촉진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 인류가 나누어 가질 파이의 크기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한 것은 커진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유무역을 반도체 업체의 수출이 늘어나면 관련기업은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민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반도체 수출을 통해 해당기업과 나라 전체 파이의 크기는 커지지만 농부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더 이상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고 국민전체가 나누어 가질 파이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을 통해 커진 파이를 국

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모두가 만족하도록 할 수 있다면 세계화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주요한 방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을 통해 빠른 성장을 구가하며 파이를 키워왔다. 그동안 커진 파이를 고루 나누는 데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의 열매는 수출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농업은 쇠퇴하게 되었다. 농민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 세계화 반대의 목소리를 점점 커지게 하고 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화는 어쩌면 피할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대세라고 한다면 이제는 파이를 키우는 노력만큼 나누는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다. 한국과 주요국간 FTA 협상의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 세계화 시대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을 막기 위해 수많은 농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해상시위도 불사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근근이 유지하던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농민들로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박한 심정이다. 세계화의 모습은 다양하게 우리 생활 주변을 파고들고 있다. 사회학 혹은 철학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세계화(지구화)에 대한 논쟁은 이제 농어촌과 산간을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서점가에는 논술, 영화, 복지, 정보화, 인종, 종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화를 바라본 책들이 20권 가까이 출간되었다. 눈길을 끄는 책은 《도둑맞은 세계화》와 《세계화의 두 얼굴》 등으로 세계화에 다소간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는 책들이다. '세계화 시대'라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자기만의 기준을 강요하는 미국식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건, 세계화(지구화)의 현상과 결과들은 우리 일상을 더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과연 세계화 시대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임을 자각할 때다

(편집자 주)